

Meeting of the WPSMEE Informal Steering Group on SME and Entrepreneurship Financing and Country Experts

-출장보고서-

2015. 9.

KDI 한국개발연구원

<제목 차례>

1. 출장 개요	1
2. 출장 일정	1
3. 출장 내용	2

1. 출장 개요

- 사 업 명 : 세계변화가 기업투자 및 배당에 미치는 영향
- 출장목적 : 프랑스, 파리 OECD headquarter에서 Meeting of the WPSMEE Informal Steering Group on SME and Entrepreneurship Financing and Country Experts에 참석, 각국의 중소기업대출 및 정책 금융관련 토론 및 관련 자료를 발표
- 활동내용:
 -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meeting 참가 및 한국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
 -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의 중소기업관련 금융정책 정보수집과 관련 토론
 - 국제기구 소속 중소기업금융 전문가 및 유럽과 북미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강화
- 출장기간: 2015년 9월 7일 ~ 2015년 9월 11일
- 출 장 자: 남창우 부연구위원

2. 출장 일정

출장 기간	활 동 사 항
9월 7일	파리도착
9월 8일	meeting에 참석 SME finance관련 자료 발표
9월 9일	meeting에 참석 SME finance issues관련 토론
9월 10일 - 9월 11일	프랑스 파리출발, 서울 도착

3. 출장 내용

가. Welcome and introduction to the objectives of the 2016 Scoreboard Edition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"New Normal"로 세계경제가 진입하면서 중소기업금융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
 - 특히, 2019년 BIS II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의 다양한 방식 및 정책을 개발할 필요를 강조
- 최근 터키에서 이루어진 G20 아젠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정책에 대한 논의를 합의
 -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정책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을 강조
 - 이번 회의에서는 37국이 참여함으로써 해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

나.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5: Progress on Methodology and Recent Trends

-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논의
 - 최근 추세에 대한 자료들은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효과를 조정
 - Asset-based financing은 leasing과 팩토링 등으로 확대된 개념을 사용
 - 벤처캐피탈 자료는 "entrepreneurship at a glance"를 인용

□ 거시경제적 논의

- 2015년 프랑스,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의 성장은 회복하는 추세
- 다른 지역 선진국의 경우도 성장은 지속되는 모습
- 다만, 개발도상국들은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며, 최근 중국의 성장은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

□ Scoreboard data and trends

-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 대출은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
 - 특히, 미국 등은 2007년 대비 잔액기준으로 20%정도 감소한 모습
- 또한,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이자율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
 -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 대출이자율이 50bp 이상 하락
 - OECD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 대출이자율이 최저를 기록
- 하지만, 대부분 국가의 신용상황(credit conditions)은 개선되는 모습
 - 영국, 일본, ECB, 미연준 등 중앙은행의 서베이자료를 참고
 - 하지만, 기업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
- 벤처투자의 경우 주요국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
 - 각국의 2014년 벤처투자 자료는 다양한 모습: 미국 및 한국의 경우 벤처투자가 확대된 상황이지만, 이탈리아, 그리스 등은 벤처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
- Asset-based finance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
 - leasing을 이용한 금융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대된 모습이며, 팩

토링을 이용한 자금조달 역시 확대된 모습

- 2016년 edition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
 - 각국의 자료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핵심지표에 대한 중간값을 표시할 필요
 - 클러스터분석 및 국가별 집합비료를 통해 추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

다. 국가별 이슈

- Trends: evolution of SME lending and credit conditions: country experiences
 - 캐나다:
 - 대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중소기업보다 확대된 상황
 - 중소기업의 외부자금조달에 대한 승인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모습
 - 하지만, 최근 기업에 대한 신용조건은 조금 엄격해진 상황
 - 네덜란드:
 - 네덜란드의 벤처생태계는 잘 발달하였지만,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존재
 - 창업 ==> 성장 ==>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펀드 및 지원프로그램이 존재
- Trends and policies: loan guarantees and direct public loans to SMEs: country experiences
 - 터키:

- 터키의 신용보증펀드는 1993년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공급해 주고 있음
- 약 1억1천만달러로 기업당 약 50만-75만 달러를 보증, 비용은 약 1-2%
- 전체 신용보증의 약 61%를 제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, 서비스업의 경우 33%, 농업이 약 6%

○ 한국:

- 기존의 신용보증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실증분석을 시행
- 현 지원체계에서는 신용보증규모를 감소할 필요가 있으며, 대출건별 신용보증비율 뿐 아니라 기업차입금에서 얼마나 신용보증을 받는지를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

□ Trends: Non-performing loans, SME bankruptcies and payment delays: country experiences

- 금융위기 이후 연체율은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, 2012-2013에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
- 최근에는 오히려 나라별로 다양한 추세를 보임
 - 그리스, 아일랜드 및 스페인의 경우 2007년 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기록
 - 부도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한 모습

□ Equity financing: private equity (Venture and Growth capital, Business angels.): country experiences

○ 벨기에:

- 중소기업은 모험자본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지만, 많은 가능성이 존재: VC, 클라우딩 펀드, P2P lending, PE 등

- 벨기에의 주요 중소기업 정책수단은 세금감면과 신용보증
- 엔젤투자 중 28%는 ICT, 18%는 제조업, 13%는 환경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

○ 오스트리아:

- 벤처투자의 산업별 변동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2008년 이후 민간부문의 투자여력은 약화된 상황
- 모험자본에 대한 공급은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이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벤처투자펀드, 모태펀드, 공동투자펀드를 추진하고 있으며, 규제프레임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
- 특히, 최근 클라우드펀드 규제를 확립: 펀드투자자의 수(150명 이상), 인터넷플랫폼을 통한 펀드조성, 투자자보호를 위한 펀드당 투자금액 및 투자규모를 제한

○ 터키:

- 2007년 모태펀드를 설정(15년 동안)하여 중소기업에 모험자본지원을 시작(Istanbul Venture Capital Initiative)
- 약 1억6천만 유로를 출연하였으며, 그 중 EIF가 31%, KOSGEB가 31%, TTGV가 25%를 차지
- 레버리지를 통해 전체 투자금액은 약 15억 유로를 기대하고 있음
- 본 펀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fund of funds의 구조로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에 투자

□ Trends and policies: Asset-based finance and other non-bank finance: country experiences

○ 이탈리아:

-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가 기업 신용경색이 가장 악화된 유럽국가 중 하나
- 이탈리아의 경제구조는 중소기업 위주: 기업당 평균 노동자수는 4명으로 독일 12명, 영국 10명 보다도 낮음
- 특히, 기업금융 중 은행을 통한 대출이 64%를 차지함에 따라 다른 자금조달수단을 개발할 필요
- 최근 Mini-bond 및 CP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

□ Other recent policy developments in SME financing: country experiences

○ 호주:

-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사업여건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
- 하지만, 중소기업의 외부자금조달 문제가 주요 문제는 아님: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승인률이 최근 가장 높음
- 금융시장, 특히 모험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정비, 법인세감면체계에 대한 개선과 무역금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

○ 일본:

- 개별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신용기관(credit bureau)과 개별기업을 식별할 수 없는 신용정보(credit DB: CRD)가 존재
- CRD는 신용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모형을 통해 분석 후 필요한 기관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: scoring service, 샘플DB제공, 통계분석자료 제공 등

라. 주제별 이슈

□ Fostering markets for SME finance: matching investor and business needs

-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서 대체투자수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
 -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정립할 필요
 -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에서 대체투자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요와 공급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기
- 중소기업 대체투자수단에 대한 수요측면에서의 문제점
 - 중소기업의 지분형 자금조달은 차입형 자금조달보다 세금감면 혜택이 부족
 - 중소기업 사업주는 금융수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중장기적인 자금조달계획을 기획할 여력이 약함
- 중소기업 대체투자수단에 대한 공급측면에서의 문제점
 - 중소기업 금융시장은 신용정보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자본시장보다 훨씬 높음
 -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함에 있어서 금융안정 및 투자자보호 등 규제적 측면이 엄격
 - 중소기업 금융시장은 충분치 못한 유동성 및 규모, 회수시장의 부족, 그리고 적절한 금융생태계의 부족 등으로 파편화된 경향
- 정책적 대응방향
 -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교육프로그램 및 금융지식 제공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

- 중소기업이 지분형 자금조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투자-준비 프로그램이 필요
 - * 특히, 중소기업 지분형 투자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시킬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필요
- 신용정보인프라를 개발할 필요: 중앙은행의 신용정보분석, 금융정보 제공의 의무화 등
-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체계가 필요: 주식상장을 위한 공시의무 개선 등
-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방식을 확대할 필요: 금융위기 이후 펀드를 통한 중소기업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펀드시장의 유동성 및 규모확대를 통해 불안정한 사적투자를 대체할 필요
- 중소기업의 지분형 자금조달에 대한 다양한 세금혜택이 필요: 수요측 뿐 아니라 공급측의 세금혜택 등

□ Business angel investments: Building the evidence base

- 최근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서 엔젤투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
 - 엔젤투자는 비차입형 자금조달에 있어서 다양한 네트워크 뿐 아니라 기업 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
 - 금융위기 이후 엔젤투자의 규모가 벤처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
- 엔젤투자시장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
 - 유럽지역의 경우 추정가능한 금융시장규모에서 엔젤투자 비중이 최근 약 10%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
 - 대부분 엔젤투자시장의 경우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며 추정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: 엔젤투자자료 및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위해 다양한 개선이 필요

- 엔젤투자시장의 최근 추세
 - 엔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수익률 및 투자기업에 대한 사업적 영향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
 - 최근에는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엔젤과 일반투자자의 공동 투자형식이 일반화되는 상황
 - * 최소 17개국에서 엔젤의 공동투자펀드가 설정됨
 - 또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에 대한 세금혜택이 확대되는 모습

□ Capital market financing for SMEs: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

-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중심 금융
 - 유동화 및 채권발행 등은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주요 수단
 -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임
 - 최근 G20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의 제한 및 기회의 제약에 대해 논의
-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진출
 - 최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은 감소하는 추세
 - 금융위기 이후에는 업력이 작은 중소기업의 상장기업 비중도 감소
 - 중소기업의 주식상장을 위한 금융생태계는 부족한 상황
- 중소기업의 자본시장
 - 미국, 유럽, 일본 등의 유동화 및 채권발행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감소하는 모습

- 미국을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중소기업의 주식상장은 제한적인 모습
-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에서 인프라의 문제점: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, 유동성 부족, 경제적 유인체계 부족,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생태계의 비활성화 등
-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에서 공급측면의 문제점: 중소기업 금융계약에 대한 공급자 유인체계 부족, 기관투자자 등의 제한된 buy-in, 중소기업 금융접근성의 부족, 공급자 스스로의 중소기업 금융인프라 부족(기업실사, 모니터링, 중소기업평가 역량 등 부족), 중소기업 지분투자자에 대한 인식부족, 소매금융의 참여 부족 등
-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에서 수요측면의 문제점: 중소기업의 금융지식에 대한 부족, 수요자의 정보불확실성,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참여열의 부족, 중소기업 자체의 자본시장 접근역량 부족, 중소기업의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
-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에서 규제측면의 문제점: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 부족, 중소기업의 차입형과 지분형 자금조달의 세제혜택 차이, 중소기업 정의와 정책의 불일치, 중소기업 금융수단에 대한 견고한 규제 부족 등
-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
 - 시장 인프라: 대출건별 정보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의 질을 향상시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, 기업자료에 대한 프로세싱을 표준화, 중소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장참여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제공 등
 - 수요측면: 중소기업의 금융에 대한 인식전환 및 금융지식에 대한 정보제공 등 금융교육서비스 제공, 중소기업 맞춤형 플랫폼 및 금융수단 개발, 차입형과 지분형 자금조달의 세제혜택차익 제거 등
 - 공급측면: 자본보유자의 의사결정 개선 및 소매투자자의 저변확대, 기관투자자의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개발, 중

소기업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의
리스크프리미엄 왜곡을 제거 등